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259호
○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찬성자 11명)
○ 발의일자 : 2020년 2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사용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저출산'이라는 단어는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차별적 용어로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용어 중 하나인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성평등주간(7.1～7.7)을 기념하여 시민과 함께 ‘성평등 언어 사전’을 만들었고, 제안된 시민의 의견 총 608건 중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10건의 결과를 2018.6.30. 발표한 바,

직업과 고등학교 명칭에 ‘여’ 혹은 ‘여자’라는 글자 빼기, 행동 등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사용, ‘저출산’은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저출생’으로 사용, ‘몰래카메라’ 대신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사용, ‘리벤지 포르노’를 범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디지털 성범죄’로 사용 등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성 차별적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성평등 언어를 제안한 바 있음(붙임1 참조).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저출산’은 인구 감소로 인해 최근 부쩍 많이 쓰이고 있는데 ‘낳을 산(産)’자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 것을 뜻해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아기가 적게 태어나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대신 ‘저출생(低出生)’으로 쓰는 게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한편, 언론(붙임2)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대체하는 기사 제목이 늘어나고 지자체들도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사업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 수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므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여성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성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저출산'은 필요한 개념이라고 언급했음.

○ 이와 같이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단순히 '성평등 언어 사전'에 명시되었다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용어의 개념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서울시 성평등 언어 사전>

	성차별 언어 (바꾸고 싶은 말)	시민 제안 이유	성평등 언어 (쓰고 싶은 말)
①	여○○ - 직업 등 앞에 '여'를 붙이는 것 - (예) 여의사 , 여배우 , 여직원 , 여대생 , 여교수 , 여기자 , 여류작가 , 여비서 , 여군 , 여경 등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	여○○ ⇨직업 등 앞에 붙이는 '여'를 빼기 ⇨ (예) 의사 , 배우 , 직원 , 대학생 , 교수 , 기자 , 작가 , 비서 , 군인 , 경찰 등
②	여자고등학교 - (뜻)여자에게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실시하는 학교	"남자고등학교는 없는데 왜 여자고등학교만 있나요 ?" (국어사전에도 여자고등학교만 등재)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를 남자고등학교처럼 '여자'를 빼고 고등학교로 명칭하기
③	처녀○○ - 일이나 행동 등을 처음으로 한다는 의미로 앞에 '처녀'를 붙이는 것 - (예) 처녀작 , 처녀출판 , 처녀출전 , 처녀비행 , 처녀등반 , 처녀항해 등	"처녀작을 총각은 못 만드나요 ?"	첫 ○○ ⇨ 행동 등에 붙이는 '처녀'를 '첫'으로 사용 ⇨(예)첫 작품 , 첫 출판 , 첫 출전 , 첫 비행 , 첫 등반 , 첫 항해 등
④	유모차 (乳母車) - (뜻)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요 ?"	유아차 (乳兒車)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사용
⑤	그녀 (女) - (뜻)주로 글에서 ,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여자를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 그 (우리말)+녀 (한자어) 결합	"그남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 she 를 번역한 일본어 피녀 (彼女)가 어원 . 남성을 중심에 두고 여성을 지칭	그 ⇨ 여성을 대명사로 지칭할 때 '그' 사용 ⇨ 상황과 문맥에 따라 '그 여자' 등 사용
⑥	저출산 (低出産) - (뜻)(여성이)아기를 적게 낳는 것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	저출생 (低出生) ⇨'저출산 문제' 등을 표현할 때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의 '저출생' 사용
⑦	미혼 (未婚) - (뜻)아직 결혼하지 않음 . 또는 그런 사람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비혼 (非婚)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비혼' 사용
⑧	자궁 (子宮) - (뜻)여성의 정관의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하여 자라는 기관	"자궁은 남자 아이를 품는 집만이 아닙니다 ."	포궁 (胞宮) ⇨특정 성별이 아니라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뜻의 '포궁' 사용
⑨	몰래카메라 - (뜻)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 또는 그런 방식 .	"몰래하는 장난이 아니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불법촬영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대신 범죄임이 명확한 '불법촬영'으로 사용
⑩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o) - (뜻)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가해자 입장의 용어입니다 ." "포르노가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 포르노의 유통이 아니라 범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용어 사용

<붙임 2.>

아시아경제

2020년 02월 13일 목요일 027면 오피니언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광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6년 12월 말 당시 행정자치부는 '헛발질'을 했다. 24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임신·출산·보육 지원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이른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그런데 결혼·임신·출산 관련 10년간 통계치에 근거한 지자체 간 순위까지 매겼다. 국가가 여성을 아이 낳은 존재로만 대상화한다는 비판이 당장 일었다. 그리고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미루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용어로 사용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2018년 7월 여성주간을 맞이할 즈음 서울시가 '성평등 언어 사전'이라는 자료집을 냈다. '생활 속 성차별 언어' 개선 맥락에서 '유모차→유아차, 여직원→직원' 등으로 하는 것처럼 저출산도 저출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저출산은 '아이 낳지 않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이유였다. 그 후 대부분 언론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대체하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지자체들도 저출산 대신 저출생을 사업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을 빼고 저출생으로 바꾼 지자체들 사업이 이전에 비해 성평등적으로 바뀌었는가? 출산을 출생으로만 바꾸었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남녀 만나기(결혼지원) 행사를 개최하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시월드·독박육아·경력단절·성별임금격차 등 제도로서 결혼이 가져오는 성차별 때문에 비혼 경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에 대한 문제인식이 바뀌어 간다는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초저출생 현상의 기준이 되는 1.3명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서를 지자체 연구원에서 생산해낸다. 1.3은 출생률이 아닌 출산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출생률 관련 개념으로는 조출생률이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3이하의 초저출산율을 보였던 2001년 당시 조출생률은 11.7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다시 한 번 1.3을 기록한 2012년 조출생률은 9.0명이었다. 2001년과 2012년 출산율은 같았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 아이 수는 두 명 이상 차이가 났다.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은 자녀 수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가임여성 숫자가 적으면 1명당 출산아 수가 많아도(출산율이 높아도) 출생률은 높지 않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출산율은 높지만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그 예다. 출산율은 낮고 출생률은 높은 경우도 있다. 1980년대 합계출산율이 1.4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한 해 거의 100만명 가까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을 했다. 그래서 출생아 수는 60만~70만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산율과 출생률이 동시에 높은 상황도 있다. 과거 1960~1980년대가 그랬다. 지금은 출산율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1980년대생보다 숫자가 많은 1990년대생들이 출산을 하기 시작하면 출산율은 낮지만 출생률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때 이른바 저출생 극복 사업의 성과를 자축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가임여성 규모 변화에 따른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 1명의 선택에 맞춘 정책과 태어난 아이 수에 기반한 정책의 결이 같을 수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5 대책과 12·7 로드맵 제시를 통해 성평등을 통해서만 저출산 현상을 돌이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출산 주체로서 여성과 가족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되, 출생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다. 이때 여성 개인이 아이 낳지 않는 이유를 성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저출산은 필요한 개념이다. 남들이 성평등, 성평등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저출생으로 모두 바꿀 것이 아니다.